

학번

성명

서평 쓰기 안내

■ 잘 먹고, 소화하기

명장면, 명대사

‘내가 읽은 책은’을 바탕으로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적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씁니다.[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감명 받은 부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부분, 재미있는 부분, 재미없는 부분 등 어떤 식으로든 기억에 남는 부분을 적습니다]

1.

2.

3.

4. 첫 느낌

자신이 읽은 책의 이름, 저자, 출판사를 적고 자신이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을 솔직하게 적어봅니다.[제목이나 책 표지를 본 느낌을 솔직하게 씁니다]

5. 데자뷔

책 속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써 봅니다.[자신이 겪지 않더라도 또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6. 누구냐, 넌?

이 책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해 봅시다. 글쓴이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을 썼을지 상상해 봅시다.

7. 아! 왜?..

책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인상적인 몇 사람을 골라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자신이 생각하는 해답을 씁니다.

8. 링크링크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책, TV 프로그램, 뉴스, 신문 기사, 영화, 음악, 인터넷 정보 등이 있으면 적어 봅시다.[책의 내용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연결해서 써 봅시다]

9. 깨달음

책을 다 읽은 후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으면 적어 봅니다.[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은 후,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풀어씁니다]

10.전체 요약

선정 도서 제목 및 저자 :

도서 선정 이유 :

선정 도서의 주제 :

선정 도서 중 인상 깊었던 구절 :

선정 도서 내용의 세줄 요약 :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국어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서평 쓰기 안내(제출용)

■ 잘 소화해서, 이제 잘 쓰기

1. 1~9 중에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한 내용을 7가지 이상 고르세요. 10번은 의무작성 (각각의 내용에 대해 A4 절반 이상을 써야 합니다. 할 말이 많은 부분을 고르세요.)
2. 어떤 순서로 감상을 쓸 것인지 결정하세요.
(전체 글의 흐름을 생각하고, 각 부분마다 관련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작성합니다.)
3. 이 책을 읽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세요.
(서평 쓰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 당부의 말씀

각각의 이야기에 소제목을 쓰세요. 7개의 이야깃거리 중 정말 할 말이 많은 5개를 선택하세요. 다섯 개의 이야기에 소제목을 각각 하나씩, 다섯 개 쓰는 것이지요. 소제목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낱말이나 두 세 낱말을 묶은 문구, 혹은 짧은 문장 하나를 올리면 됩니다. 이 소제목마다 한쪽짜리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 글쓰기가 쉽지요. 그 뒤에 들어가는 말과 나가는 말을 부드럽게 붙여주고 다듬으면 글 한편 쓰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여러분이 쓴 소중한 글은, 제가 반드시 읽습니다. 판단기준은 간단합니다.

첫째, 쉽게 쓴 글이어야 한다. 중학교 아주 까탈스런 동생이 읽어도 쉽게 이해되도록 써야 합니다.

둘째, 즐거리는 30% 이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제가 원하는 글은 1/60억의 글입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써 주세요.

글을 다 쓴 다음에는 고쳐쓰기를 반드시 해 봐야 합니다. 우선 쓴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호흡이 딸릴 정도로 문장이 길면 문장을 짧게 끊어 보세요. 한 문장에 하나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면서요. 또한 표현이 어색하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문장과 표현을 다듬어 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가 쓴 글을 부모님이나 동생, 혹은 친구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아보세요. 그 내용을 고쳐쓰기에 담으면 여러분은 더 쉽고, 더 구체적이며, 더 매력적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매일 100개씩, 3달만 하면 멋진 가슴과 근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우리 주변에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이 드문 이유입니다. 이번 ‘한 학기 한권 읽기’ 수업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된 시간이 여러분의 글쓰기 능력에 든든한 근육이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성과 고민과 감동이 저마다의 찬란한 솔직함으로 가득한 멋진 글을 기대합니다.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국어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서평 쓰기 안내(제출용)

학번 _____ 성명 _____

■ 개요 만들기(글감 배열하여 개요 만들기)

글감 5개를 어떻게 배열하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지 생각해 보고, 글의 설계도(개요)를 만들어 봅시다.

순서	글감 번호	소제목 및 내용 (간단히)	어떻게 쓰나요
처음 들어가는 말			글의 첫인상을 결정지을 부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면 독자들이 내 글에 빨려들까요?
중간 본문 1			독자에게 책의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또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 경험, 세상과 관련된 일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중간 본문 2			독자에게 책의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또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 경험, 세상과 관련된 일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중간 본문 3			독자에게 책의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또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 경험, 세상과 관련된 일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끝 나오는 말			중간 부분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책에 대한 자신의 종합적인 평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 됩니다. 처음과 중간을 쓰다보면 자연스레 할 말이 생길 거예요.

※ 중간 내용은 두 개 이상의 글감을 하나로 묶쳐 써도 됩니다.

■ 서평 쓰기 편집 요령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1. 맨처음 [F7]을 누르세요.

용지 여백이 나오지요. 거기서 위쪽 10, 아래쪽 10으로 하세요.

그 다음 머리말 10, 꼬리말 10으로 하세요. 왼쪽과 오른쪽은 20으로 맞춥니다.

2. 글자모양이에요. [Alt]+[L]을 누르세요.

글자크기 10으로 하고요. 장평은 100으로 합니다.

자간(글자간격) 0으로 맞춥니다. 글꼴은 '함초롱바탕'으로 합니다.

함초롱바탕이 없을 때는 '신신명조'나 '휴먼명조'나 '신명조'로 합니다.

3. 문단모양이에요. [Alt]+[T]

줄간격 160, 들여쓰기 10, 정렬방식 양쪽혼합, 문단간격 위, 아래 모두 0으로 합니다.

여백은 왼쪽, 오른쪽 모두 0으로 합니다.

4. 글 전체 '제목'은 이렇게 하세요.

줄을 띄지 말고 바로 붙여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밑에 책제목을 적습니다.

책제목 : 글꼴 'HY견고딕', 글자크기 14

그 아래에 자기 서평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입니다. 책 제목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붙입니다.

글꼴 'HY견고딕', 글자크기 24로 가운데 정렬해주시고요.

5. 학번과 이름을 쓰세요. 이름은 문서 맨 오른쪽에 놓이게 하세요.

글꼴 'HY견고딕', 글자크기 12

이름 아래 한 줄을 띄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예)

송승훈 이일훈, <제가 살고 싶은 집은>을 읽고

마주 보는 창이 있어야 바람이 생긴다

10100 강○○

본문 시작합니다. 이하 생략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국어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서평 쓰기 안내(제출용)

6. 소제목 위 아래로 한줄만 띄세요.

소제목은 ‘HY건고딕’, 글자크기 12로 맞춥니다.

소제목과 본문을 위 아래로 한 줄씩만 띄니다.

7. 쪽번호 매기기 : 쪽 → 쪽번호 매기기 → 넣기

8.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어요. ※※※

문단을 시작할 때 사이띄개(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칸을 띄는 행위입니다. 자동 들여쓰기 기능을 이용하면 저절로 칸이 생깁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이띄개를 눌러서 칸을 비워놓았다면, 나중에 자기가 쓴 글을 모을 때 컴퓨터 화면을 눈이 충혈되도록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서 다시 한 칸 한 칸 지워야 합니다. 엄청나게 지루하고 단순하고 힘든 노동입니다.

편집기술을 처음 볼 때 귀찮고 번거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익혀두면, 컴퓨터 문서작성기 편집에서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두고두고 기분 좋은 기술입니다.

● ‘한 학기 한 권 읽기’ 결과물 2가지 제출.

● ‘서평쓰기’ 파일 이름은 ‘학번_이름_책이름’ 으로 한 후, 편집 요령을 참고하여 워드 작성 후,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합니다.

－ ※ 제출일 : 6월 8일(일) 24시 전까지

파일 이름 예) ‘10100_강○○_제가 살고 싶은 집은’

● ‘서평 쓰기 안내와 개요 만들기’는 국어부장이 걸어서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국어부장은 제출하지 않은 사람 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 ※ 제출일 : 6월 9일(월) 1교시가 끝난 후

1~ 5반 : 문애란 선생님 (2층 본교무실)

6~10반 : 김원룡 선생님 (1학년 교무실)

※ 늦게 제출하면 감점 있음.

■ 참고자료

‘1만 시간 동안의 남미’ 서평

우리도 막연한 미래에 대해 끊임없는 여행을 하고 있다

20100 진○명

1.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책 속의 매력

일단 ‘1만 시간 동안의 남미’는 필독 도서로 선생님께 여러 책을 소개받고 내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책이다. 겉표지부터 그랬다. 하얗고 도톰한 표지에 시원한 필체로 쓰인 제목, 그리고 진정 자유로워 보이는 필자의 웃는 얼굴이 알 수 없게 내 마음을 이끌었다. 1만여 시간동안 남미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쓴 책이라는 스토리를 듣고 나서 마침내 나는 ‘내 책이다’라는 느낌을 얻었다. 어쩌면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 자유로운 삶을 너무나 갈망해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이야말로 내가 이 답답한 삶 속에서 책을 읽는 순간이나마 간접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여행이라는 게 그렇다. 답답한 일상을 뒤로한 채 아무 걱정 없이 어디론가 떠나는 여행. 정말 멋진 자유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열정과 자유의 대륙 남미, 내겐 꽤 생소한 대륙이기에 더욱 흥미를 갖고 책장을 넘겼다. 우선 이 두툼한 책이 거부감 없이 책장이 술술 넘어간 건 박민우라는 사람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다. 물론 여행지에 대한 사진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차분하고 가지런한 문체의 일반 책들과는 달리 자신만의 거칠고 투박한 직설화법으로 책을 써내려갔다. 어쩌면 그의 거칠고 투박한 문체와 남미라는 대륙이 어울려서 이 책이 더 흥미로울 수도 있다. 박민우라는 자유로운, 아니 자유로워지고 싶은 한 남자가 들려주는 생동감 있고 유머 있는 남미 여행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쉴 새 없이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2. “떠나고 싶어!”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을 뽑아보라면 나는 맨 처음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다. 처음 부분에서 내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여느 때처럼 지루함에 파묻혀 두꺼운 책을 쿵 하고 덮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 장을 넘기면 네 사람의 그림자 사진과 함께 글이 쓰여 있다.

“배부른 소리하네. 먹고 살기 바쁘는데 여행 타령이나 하고…….”

“사는 거 다 똑같다. 다를 것 같아도 다를 거 없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남미를 여행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우려이다. 거기에 박민우의 오랜 여행의 시작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다. 비행기 타기 몇 시간 전에도 게으름 탓에 준비도 안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남미 땅을 처음 밟았을 때도 장염과 몸살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다. 이러는 자신에게 작가는 스스로에게 화를 낸다. 그리고 남미까지 와서 짐도 제대로 풀지 않은 채 덩그러니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본격적인 여행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국어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서평 쓰기 안내(제출용)

을) 떠나고 싶어!” 라고 외치며 그토록 자신이 원하던 여행에 대한 간절함을 표출한다. 아마 이 때의 간절함이 이 뒤에 그의 앞에 펼쳐질 방대한 남미라는 대륙과 어울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다. (와하카에서 겔라게차라는 축제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패기 있게 들어가려 발버둥 치는 장면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에서 두 번째로 인상 깊은 부분을 꼽자면 바로 카를로스와의 만남이다. 마스코타라는 곳에서 작가는 카를로스라는 사람을 만난다. 처음 보는 동양 사람에게 인정도 많고 친절한 카를로스 덕분에 편히 여행을 하고 편히 쉬고 또 편히 먹을 수 있었다. 나를 인상 깊게 만든 구절은 바로 이 부분이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도 떠나야 함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좋고 좋아도 떠남의 설렘만 못한 것, 확보된 행복보다 불안정한 미래가 더 짜릿한 것, 나그네의 유전자를 가진 이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 편안함 속에서 나였다면 당연히 카를로스라는 정 많은 사람과 함께 여유를 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을 읽고 박민우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진취적이고 진정으로 자유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 진정한 자유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 속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고단하고 답답한 삶에만 적응해 찌들어있던 내게 뭔가 뽕 뚫리는 느낌을 가져다 준 구절이었다.

3. 남쪽으로 튀어

영화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영화가 있다. 바로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남쪽으로 튀어’ 라는 영화이다. 이 영화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세상에 얹매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독립 영화 감독 최해갑(김윤석 분)이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요절복통 투쟁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국가를 상대로 불합리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남쪽 시골마을로 이사를 가면서 그 곳에서 겪는 에피소드가 주 소재이다.

물론 이 영화와 ‘1만 시간 동안의 남미’ 라는 책은 차이가 많지만 난 작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영화의 주인공인 최해갑과 작가 박민우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다. ‘남쪽으로 튀어’에서 최해갑은 이 책의 작가처럼 무언가에 얹매여있지 않은 사람이다. 영화에서 나오듯 국민이길 거부하고 tv 수신료를 내라니까 tv를 안 본다며 던져버리고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라는 작품을 만든다. 못마땅한 건 안 하고 할 말은 하고 사는 자유로운 최해갑의 모습에서 박민우의 모습을 봤다. 물론 여러 차이가 있는 두 인물이지만 무언가에 얹매이기를 싫어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통된 면이 있다.

영화에 나오는 최해갑을 보면서도, 이 책의 저자를 보면서도 나는 부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한 간접경험으로 잠시나마 구속 없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주변의 구속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어느 샌가 그 인물들에 대한 부러움을 느끼고 있었고 공통점을 떠올릴 수 있었다.

4. 여행, 그리고 박민우라는 사람

“여행은 나의 아픔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거룩한 퍼포먼스다.”

이 책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오는 구절이다. 사실 이 책에서 내가 가장 맘에 와닿았던 말이기도 하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의 고통에서, 일상에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려할 때 여행을 간다. 나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국어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서평 쓰기 안내(제출용)

도 그렇다. 답답하고 묶여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다. 누군가 내게 “미래에 해보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항상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한다. 유럽을 가이드 없이 혼자 무기한으로 여행하는 것. 여행이라는 단어에 설렘이 있는 걸까. 아니면 설렘 없는 삶에 지쳐버린 걸까. 나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너무도 뻘하다. 대부분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런 지루함 속에서 살아가는 와중에 이 책에서 풍겨져오는 박민우만의 유쾌함과 남미에서의 생생함이 더욱 부럽고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렇다고 이 책에서 나오는 박민우의 남미 생활은 그리 호화롭고 편한 여행은 아니다. 노트북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다반사가 되니 조금 더 견디고 견뎌 실낱같은 희망으로 다른 도시에 가면 다시 배시시하고 웃어버리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박민우라는 사람에게서 ‘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다. 그는 글을 쓰는데 있어 자신의 감정을 백프로 표현해 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같다. 돈도 없고 먹는 것을 밝히고 힘든 것도 싫어하고 게으름도 피우며 남미의 대륙을 느낀 그대로 표현한다. 기분이 나쁠 땐 기분이 나쁘다고, 기분이 좋을 때는 너무도 행복해서 미쳐버릴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 또 그렇게 표현한다. 박민우처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고, 시련을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할지언정 일단 부딪히고 보는 그런 거침없는 모습이 좋다.

5. 1만 시간동안의 남미에서 본 우리들의 삶

‘1만 시간동안의 남미’를 다 읽고 나니 책을 다시 한 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책을 우리의 삶과 연관시키면 어떨까는 내 생각이 꽤나 오랜 시간동안 고뇌의 시간을 갖게 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는 와중에는 그저 저자처럼 자유롭게 구속 없는 여행을 부러워만 했다면 2편에서는 그런 삶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아까도 말했듯 작가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남미를 여행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니다. 넉넉지 못한 재정 탓에 항상 궁핍하고 떠돌아다니고 잘 곳, 먹을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남미에서의 주된 일상이었다. 또한 치안이 안정되지 못한 남미에서 언제 자신에게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갱스터들을 경계하고 피해 다니는 데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다시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열정이 있는 가슴으로 어찌면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여행을 지속한다. 난 여기서 우리들의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았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끊임없는 실패와 번뇌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삶에 불평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어찌면 더 좋은 날을, 더 행복한 삶을 만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과 기대감에, 또 그 설렘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고통과 번뇌의 시간 속에서 더 좋은 사람과 좋은 곳을 기대하며 새로운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는 박민우처럼, 우리도 어찌면 막연한 미래에 대해 끊임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다. 실패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삶의 여행을 멈출 수도 없는 게 바로 인간이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가 이런 점까지 생각해서 이 책을 쓴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저 그가 남미에서 느낀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지만 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을 박민우라는 인물 하나로 보는 느낌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기에 나는 이 책에 더욱 애정이 간다. 모처럼 두툼한 책을 읽고 그 여운에 파묻혀 생각하다보니 뿌듯한 기분이 든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며 늘 머릿속에서 맴돌 것 같은 책이다.